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배우고 실천했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이야기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기집

ASAN
FRONTIER
YOUTH
THE ASAN NANUM FOUNDATION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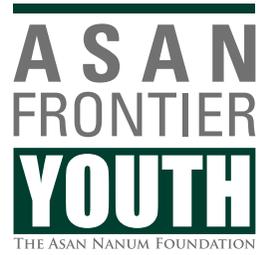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배우고 실천했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이야기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기집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기집



아산나눔재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기집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배우고 실천했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이야기



따뜻한 만남, 그 기억들

Asan Frontier Youth

프로그램

젊은 프론티어 NGO에서 길을찾다	04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협력기관 소개	06

함께 그리고 기록

사전교육	09
입단식	10
사전 워크숍	11
정기교육	12
정기교육 연사특강	13
정기교육 현장방문	14
정기교육 캡스톤	15
중간 워크숍	16
문화생활 소모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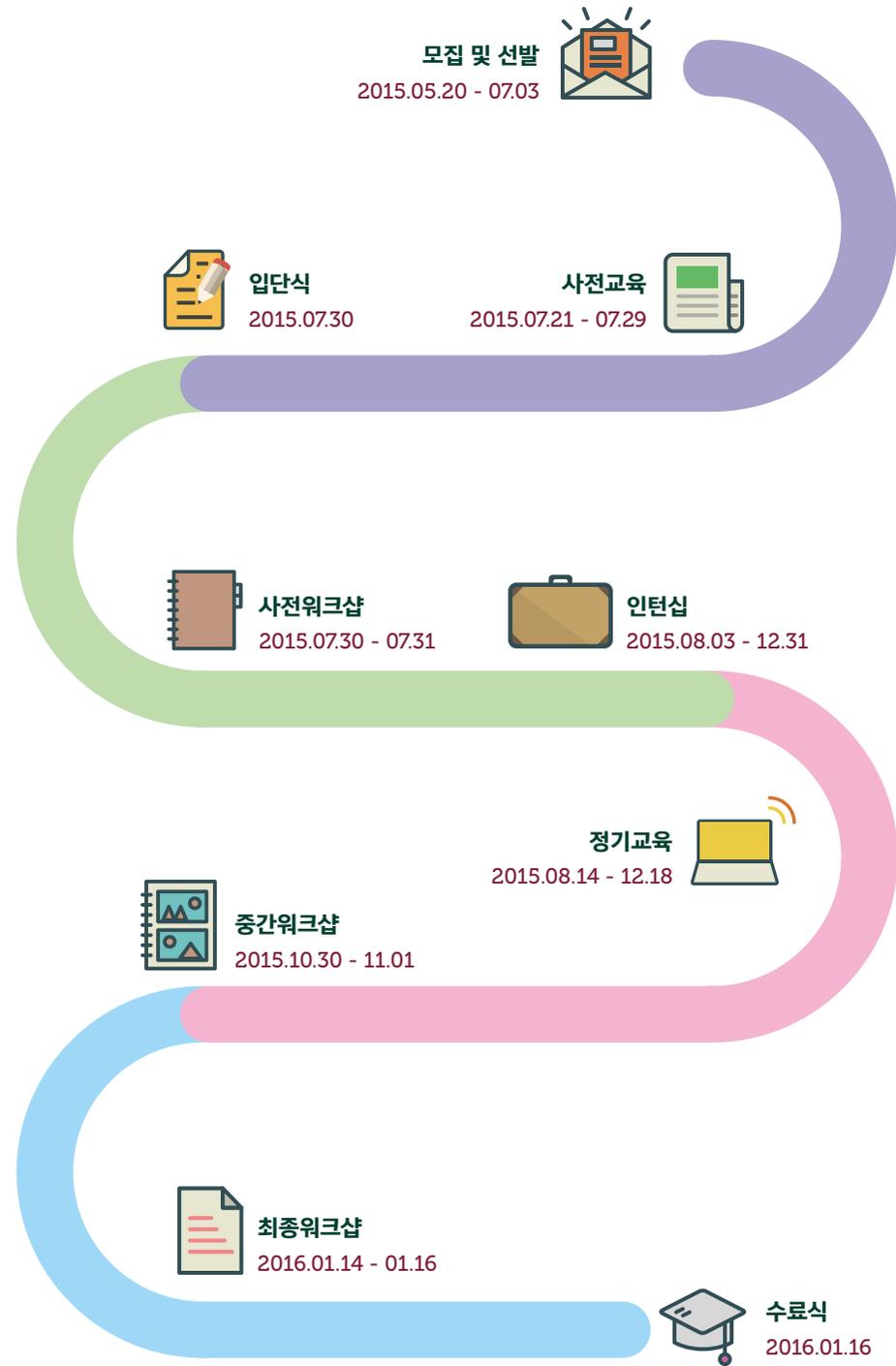
수기집

너와 나의 이야기	18
-----------	----

재단소개

아산나눔재단	76
--------	----

젊은 프론티어 NGO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 개요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영역의 NGO 인턴십 경험과 비영리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이론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 기관에는 유능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 모집 및 선발

2015.05.20 - 07.0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예비단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했고, 높은 경쟁률 속에서 진행된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30명의 최종 예비단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사전교육

2015.07.21 - 2015.07.29

예비단원들은 인턴십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배우고 비영리 분야 이해 증진을 목표로 7일(50시간) 동안 사전교육을 수행했습니다. 기획, 홍보, OA 등을 배우며 기초 업무 지식을 숙달하였고, 비영리 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팀프로젝트 등을 통해 단원간 친목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입단식

2015.07.30

예비단원들이 공식적으로 입단하는 자리.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단식에선 단원들이 5개월 동안 근무할 인턴십 기관이 발표되었습니다. 단원들의 얼굴엔 입단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인턴십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워크샵(사전, 중간, 최종)

프로그램 참가 기간 동안 총 3번의 워크샵이 이루어졌습니다.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리플렉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의 본인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단원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수행

2015.08.03 - 2015.12.31

최종 선발된 단원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28개 NGO 기관에서 인턴십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원들은 복지, 국제, 환경, 교육, 인권, 문화 분야와 같은 다양한 NGO 기관에서 근무하며 비영리 현장을 가까이서 이해하고 비영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더불어 매월 1회 해당 기관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자와 멘토링을 진행하며, 본인의 업무와 진로에 대해 조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별 업무용 노트북 1대와 월 120만원(주40시간 기준)의 활동비가 제공되었습니다.

정기교육

2015.08.14 - 2015.12.18

단원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매월 2회 진행되는 정기교육 과정을 수행하며 비영리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총 9세션(63시간)의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연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비영리 현장을 접하며, 차세대 비영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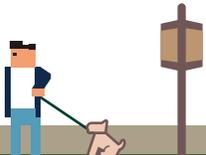
수료식

2016.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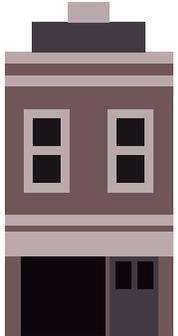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마지막 일정이자 단원들의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단원들은 5개월 동안 준비해온 캡스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하 속에서 한 명 한 명 무대로 나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서의 여정은 이것으로 마지막이지만, 이들에게는 더 멋진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협력기관 소개



<p>1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양한 방식의 모금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전문 모금 및 배분기관입니다.</p> 	<p>2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피해자 인권을 보호 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연계를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p>	<p>3 동방사회복지회 종합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4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저소득 빈곤층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정부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자활지원 기관입니다.</p> 	<p>5 서울YWCA 1922년 창립된 한국의 대표 여성시민단체로서 나눔, 섬김, 살림으로 평화를 이루는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p>	<p>6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적인 센터" 비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눔과 참여가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p> 		
<p>7 여월농업공원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공간으로 자연, 사람, 공동체 회복과 융합을 통해 자연 친화적 시민을 육성하고 도시형 여가 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공원입니다.</p> 	<p>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유일 시각장애인 전문 복지 기관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증진을 위해 교육, 상담, 치료,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종합적 문제 해결과 방향을 제시해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p> 	<p>9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유일 노인여가문화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인권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10 비전케어 WHO산하 IAPB (세계실명예방기구)와 함께 국적, 인종, 종교를 초월한 인류애로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국제실명구호기구입니다.</p>	<p>11 생명의숲국민운동 사람과 숲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숲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환경단체(NGO)로서 숲문화운동, 도시 숲 운동, 학교 숲 운동, 정책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숲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p>	<p>12 서울시NPO지원센터 NPO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로서 시민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NPO 성장토대 마련,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13 솔바람복지센터 지역 내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순기능을 돕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방과 후 돌봄사업 및 정서지원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p>	<p>14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와우북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 시민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17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가출이나 가정해체로 소외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쉼터와 그룹홈 사업, 학교사회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p> 	<p>15 우리주간보호센터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35세에서 55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 중장년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입니다.</p>	<p>1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p> 	
<p>18 태화복지재단 1921년 선교사의 사명과 헌신에 의해 전국적으로 세워진 사회 복지관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43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연구소와 해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전문재단입니다.</p>	<p>19 한국YWCA연합회 1922년 창립 이래 전국 45개 YWCA에서 9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여성운동 단체입니다.</p>	<p>20 한국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빈곤 아동, 청소년 복지와 지역 아동센터의 기능과 역량강화, 교육, 문화 지원사업, 정부 정책 제안사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p> 	<p>24 코피온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세계 각국의 NGO 및 비영리기관에 국제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해외 NGO들과 협력함으로써 인류애를 실현하고 지구촌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p> 
<p>21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와 참여, 기업 사회책임, 인권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p>	<p>22 스마일재단 치과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국내 최초, 유일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p>	<p>23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한반도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추구하는 비영리청년NGO로서, 균형, 자발, 소통이라는 청년 가치를 주춧돌 삼아 통합, 통일된 한반도 미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28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교육 연구 및 정책수립, 국내외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입니다.</p>
<p>25 푸른나무재단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 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p> 	<p>26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우리 사회의 깊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및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p>	<p>27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회원단체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정부와 학교, 국제청소년 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함께
그리고
기록 :

사전
교육



슈퍼인턴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기간이자, 서로 꿈과 열정을 확인하며 5개월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인생에 몇 번 없을 마음껏 꿈꾸고 그것을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인생에 과자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김지수 단원





입단식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

2015. 7. 30. (목)

진정한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출발점이었던 입단식.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되는 마음으로 큰무지가 써져있는 단원증을 받았습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명이 한데 뭉쳐 고민하고,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각자의 스타트라인에 서게 된 우리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뽀뽀이 흩어져도 같은 길을 갈 것을 알기에 외롭지 않은,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이민형 단원



사전 워크샵



단원들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던 사전워크샵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단원들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빌딩 시간에 했던 스파게티와 마시멜로 쌓기 미션에서 끈음을 해 장기자랑을 했던 것도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올랐던 도봉산은 마치 앞으로의 5개월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

문유선 단원





연사특강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 중 단연 백미였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여러 연사님들을 만나며 삶의 경험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견문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머리로 알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종률 단원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단원들의 생각이 총집합 되는 캡스톤 시간! 갈등도, 의견도 분분했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갔지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가는 진부한 방식을 뒤로 하고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뽐내며 주체성 있는 사회인으로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소장님과 리플렉션 메모는 나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김예진 단원



많은 기관들을 방문하며, 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직접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물어나던 그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탄하며, 이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뵈 날이 오겠죠?

전지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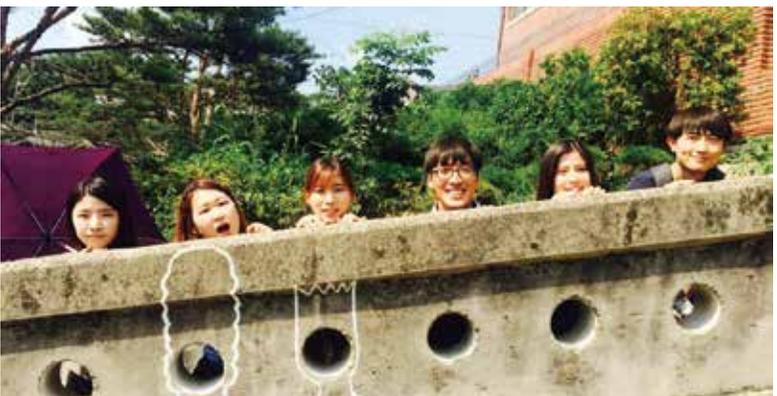
가을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유명산을 거닐며 단원들과 함께 2박 3일간 중간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다짐 그리기를 통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꿈꿔보고 3개월 동안 각자의 비영리기관에서 활동 근황을 나누며, 단원들과 함께한 명랑운동회까지 알차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턴십 생활에 재충전과 서로의 목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서윤 단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단원들과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단원들과 등산, 마라톤, 독서토론 등을 함께하며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김영철 단원



너와 나의 이야기 :



Asan Frontier Youth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간다

새로운 희망으로 향해가는 솔바람복지센터

강보미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제 인생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달이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던 대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인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인 저는 복지관 파견을 희망했고, 송파구에 있는 솔바람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은 값진 경험이었지만 처음에는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산에서 송파까지 3시간에 가까운 출퇴근길은 매일 서울시를 종단

여행하는 것 같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고 능력적인 한계를 체감하는 경험은 저를 몇 번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 그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8월의 후덥지근했던 여름을 지나 12월의 겨울에 오기까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센터의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은 처음엔 적

극적으로 말을 걸어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멀리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안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센터 내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은 제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에는 환경 미화 및 행정 지원의 역할부터 시작했고, 이후 정서지원 사업으로 투입되어 집단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후반부터는

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3

장래희망
NGO 활동가

좌우명
초심불망 마부작침
初心不忘 磨斧作針

인턴십 수행기관
솔바람복지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꿈통장'이다. 경험을 차곡차곡 적립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적립했을 때, 든든한 경험은 물론이고 성장이라는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돌려주기 때문이다.



싱싱 텃밭 원에 프로그램을 전담하며,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산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가를 직접 만들어가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과 동시에 진행된 교육 과정 속에서는 'Why?'라는 질문을 지속해서 던지며, 왜 비영리섹터에서 일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유스 단원들과 소셜벤처를 구상해 보기도 하고, 중간 워크숍 때 단원들을 위해 태극권 자세를 열심히 연습하여 시연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인턴 생활은 어느덧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제가 얻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빈곤 아동 문제에 접근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다는 지향점입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제게 기쁨이 되었고, 이는 활동을 계속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빈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삶의 전반에 영

향을 미쳐 빛나는 존재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 제도적인 변화를 기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경험들을 가치로 전환하는 성숙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계획합니다. 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제게 주어진 신념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소감을 빌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일동 솔바람복지센터

황은지 방과후교사 | 마지막날이에요~ 선생님 인턴생활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 기억만으로도 설렘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바라요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함을 챙겨 2016년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감사했어요^^

곽민희 학생(초6) | 보미쌤 저 "민희"예요. 선생님 분지 잊고계 같은데 시간 참 빨리 가네요. 5개월동안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아! 저랑 솔바람복지센터 있으면 아니돼요. 보미쌤이 가서 정말 아쉬워요. 보미쌤 잘가고 다시와요. 사랑합니다.

김지민 센터장 | "아무도 보아주지 않거나 아직 다른 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나의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 은총일 것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 함께한 5개월의 시간이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모습과 활약이 기대됩니다. 몸튼튼 마음튼튼~ 보미쌤을 응원합니다. 축복을 빕니다.

김치숙 팀장 | 강보미 선생님 5개월동안 솔바람복지센터에서 일배우느라 고생했고 항상 힘내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요.

양한빈 공익요원 | 8월부터 5달동안 고생많으셨어요~ 2016년에도 항상 행복하세요~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강아인

6개월 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을 때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젊은 프론티어, NGO에서 길을 찾다."라는 문구를 본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는 생각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벤처중소기업학이기에 늘 영리를 추구하는 방법만을 배워왔었고, 제 주위에는 모두 영리기업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는 비영리 분야에 뜻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이번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분야에 관해서는 관심과 열정밖에 없던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 1기에 합격해 단원들과 소통하고 교육을 통해 배우며 조금씩 '영리의 우물'에서 벗어나 '비영리'라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처음 경험해본 것들이 정말 많습

니다. 워크숍에서의 즐거운 경험들과 방송 출연, 포럼 참석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은 물론, 언제나 즐거운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의 만남부터 매번 새롭고 다음이 기다려지는 정기 교육까지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나에게 항상 설레는 기대감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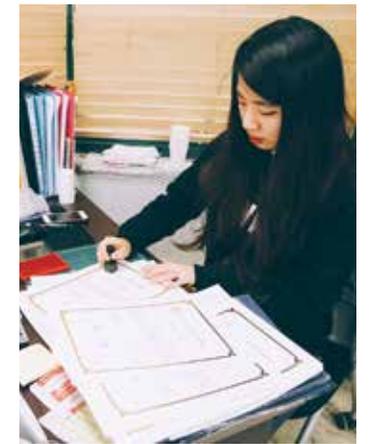
또한, 8월부터 시작한 여월농업공원에서 인턴 생활은 저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전교육 때 여월농업공원에 대한 소개 발표를 들으며 어떤 단원이 저곳에 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곳에 가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월농업공원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달팽이 트랩 만드는 방법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일년 중 가장 큰 축제를 준비하며 정신 없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도 해보고, 글로 다 적기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여월농업공원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겪어볼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24년간 항상 또래 사람들과만 지내왔었는데 여월농업공원에 온 이후로 미취학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퇴직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울러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곤 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친해지는 것이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5개월 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터닝포인트를 만나 저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야 할 방향과 길을 걸어갈 자세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서의 인턴 생활은 이제 막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유지하고 5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채민자 본부장
여월농업공원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인인!! 하안피부가 흰하 보일 때 왔는데 어느덧 피부를 감추는 계절이네. 3계절을 거치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겠지만 많았어 최선을 다하는 아인이를 보면서 늘 멋지고 예뻐어. 빈자리가 무지 클까라는 걸 알지만 항상 보고싶을 거야. 늘 잊지 말길 바라며 우리 기관에서 강아인은 최고였어!!! 라고 외치고 싶다.. 늘 파이팅~~~~!!!



학교
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

나이
24

장래희망
사회적기업가

좌우명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자

인턴십 수행기관
여월농업공원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모험이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끝에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반년

권종률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

나이
29

장래희망
NGO 또는 NPO 활동가

좌우명
일어난 일은 모두 잘 된 일이다

인턴십 수행기관
태화복지재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여행이다
새로운 만남, 관점,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유스와의 첫 만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비영리에 관심이 있던 터라 대학생을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이 생겼고 운 좋게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단원들을 만난 기회도 참 좋았고, 비영리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강의도 듣고, 도전과 변화의 분위기가 꿈틀대는 '마루 180', '구글캠퍼스 서울' 등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성수동 소셜벤처 벨리를 방문한 기회도 참 감사했습니다. 교육의 핵심프로그램인 캡스톤은 때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프로젝트 작성 과정과 토의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있었습니다.



첫 출근 그리고 교육

약 2주간의 교육을 거쳐 제가 선발된 태화복지재단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멘토인 전략기획과 최수진 과장님을 만나서 전체 직원분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시 재단을 이해하는 사전교육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략기획과의 최수진 과장님, 김주영 대리님, 김수정 대리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세 분께 여러모로 사사를 받았지만, 특별히 김주영 대리님과 전략기획·연구 업무를 하며 밀접하게 일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니다.

다른 재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주 업무로 워크숍 기획 및 진행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해왔기에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그 날부터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문서작성 때 문체의 통일성, 글의 가독성, 구조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았고, 여러 번의 수정보완을 거치며 문서가 제대로 담금질되었습니다. 각종 회의의 보조, 임원워크숍 보조, 법인 전 직원 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며 회의, 행사 준비의 A부터 Z까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수정·보완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었고,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틀을 먼저 주기보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게 한 후, 피드백을 받으며 일을 배워나가게끔 업무를 지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꼭 채울 수 있는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이정표

반팔을 입고 입단식을 시작했는데, 벌써 두꺼운 코트를 입고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찰나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경험과 감정들을 정리해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 미진한 마음도 듭니다. 약간의 떨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발걸음을 땀 생각에 흥분,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배운 것들을 앞으로 일할 곳에서 잘 적용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단원들이 향후 각자의 영역에서 위치와 방법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수기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신 태화복지재단 직원분들과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 분들, 여러모로 이끌어주신 비영리분야 선배님들, 교육의 처음과 끝을 함께해주신 윤상섭 소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독서소모임 '드러커와 칠드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과장

태화복지재단

비상(飛翔)하는 권종률 인턴에게..

5개월, 결코 짧지 않은 인턴 생활이기에 권종률 인턴에게는 태화 인턴 활동이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 확신해요. 이제 비영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 크게 비상(飛翔)하길 바라요. 그동안 마음을 다해 태화를 아끼고 선배들을 섬겨준 점 감사드려요. 이미 어느 곳에서든지 일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다 갖춘 권종률 인턴이 귀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 남겨요.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 괴테 -

경영학과 학생에서 비영리기관 인턴으로

김성민

비영리로의 첫걸음

한창 싸이월드가 인기 있던 시절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일촌을 맺고 사진을 공유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주 교류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본인이 후원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사진을 올리신 걸 보고 크게 감명받고, 저도 언젠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군대를 전역하고 한 NGO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하며 비영리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소식을 접하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7살, 아직도 배울 게 많은 나이

이제까지 저는 스스로 꽤 많은 것을 하고 보고 듣고 느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만이었죠. 사전교육과 정기교육 그리고 기관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접했던 많은 것들은 저에게 꽤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저를 더욱 겸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 그들의 초기 힘든 과정과 그들이 꾸는 선한 꿈을 듣고, 스타트업들의 데모데이에 참관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도전 정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현장에서 열심과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원들과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더 어른스럽고 실력 있는 유스 단원들을 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27살, 아직도 배울 게 너무나 많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을 공유한다는 것

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그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좀처럼 비영리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영리 분야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같은 비영리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외롭고 힘든 점은 위로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의 꿈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이 아산나눔재단을 통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위로받는 일이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 모두 사랑합니다.

강성훈 팀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민 선생님 '당신은 희망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진 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복학하기 전 2개월 간 더 함께 하기로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학교
건국대학교
경영학

나이
27

장래희망
NGO 활동가

좌우명
후회하지 말자

인턴십 수행기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은하다.

별들이 은하에 모여 살 듯,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거리는 유스
단원들이 모인 곳이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이기 때문이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마무리는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

김연수

저에게 올해는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들이 다른 결과를 끌어내었고 그 일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참여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감문을 쓰기 위해 다시 되돌아봤던 저의 2015년도 하반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이 들어갔던 센터. 센터 선생님들은 저를 굉장히 반겨주었고, 비록 센터에서 엄청난 활약과 활동을 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몰랐던 특기, 장점을 깨우치게 되고, 그 덕에 센터에서 나름대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어떠한 것인지 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멘토이신 유리 선생님의 배려로 여러 포럼과 컨퍼런스에도 함께 참여하고 배우면서 처음에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협소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저에게 새로운 비영리 섹터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 공청회도 들어가 보고,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니저님의 퇴사로 정책포럼을 맡아, 실수도 하긴 했지만 보다 책임감 있는 행사도 진행해보고, 명랑시장, 미트쉐어 컨퍼런스, 의제포럼, 미 대사관 강연 등 큰 행사에 보조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강연 및 의제도 들 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처음엔 국제협력에 치우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 우리 사람 다 되었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국제 NGO 에 치우친 이해가 아니라 보다

큰 영역의 이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멘토링 시간이 길어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에 뜨끔하기도 하고 펀치를 맞기도 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참여하게 되면서, 큰 포럼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강연도 들으면서 처음에는 '큰 도움이 될까'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값진 경험이다. 언제 또 이런 곳에 참여해보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사와 시야를 넓혀주고 캡스톤을 하면서 비전공자로서 전공자의 시야와 시각을 들을 수도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같은 기관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김유리 팀장 서울시NPO지원센터

청춘의 절정, 그 찬란한 20대의 여정을 거닐고 있는 김연수를 만났습니다. 그 나이다운 발랄함과 특유한 목소리 톤으로 '이건 뭐예요~? 이젠 왜~그러는건데요?'라고 묻곤하던 김연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게된 선배들이 건넨던 자극이 공익계스러운 인사와 삶의 비전에 대한 질문들에 동공의 지진을 보이기도 했던 김연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 서울시NPO지원센터'라는 공간에서 함께 베이스캠프를 만들어간 김연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여행을 합니다. 인생여정 속에서 이 5개월의 여정은 깨알같은 시간 밖에 안되겠지만, 이 여정이 언젠가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동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

나이
23

장래희망
국제교류 분야 종사자

좌우명
우연은 없다. 모든일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인턴십 수행기관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짧은 감이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꼈는데 어느덧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이 경험이 후에 무르익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하루

김영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상이 이상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고민이 많습니다. 무언가 실천하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당장 앞에 주어진 과제들을 해치우기에도 벅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오늘도 지나갑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으담배 냄새.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고개를 듭니다. 게시판. 아산 프론티어 유스? 뭔가에 홀린 듯 사진을 찍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글을 적습니다. 양복을 입습니다. 생애 첫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운 좋게 합격!
얼떨떨하다.

교육을 듣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0년 여름, 2011년 여름, 2012년 여름, 2013년 여름, 2014년 여름. 여름은 항상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한데, 영 시원치 않은 기분입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려고 하지? 교육에 참여합니다.

저는 기관에 배정됩니다. 일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잘합니다. 성취감을 얻습니다. 저와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싸웁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앞에 주어진 과제들을 해치우기에도 벅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오늘도 지나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으담배 냄새.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고개를 듭니다. 달과 별. 반짝거려 참 예쁩니다. 웃습니다.

지난 5개월간, 불확실함을 가지고 비영리 조직에 뛰어든 저에게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었을 때 달과 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프로젝트 기획, 운영, 홍보, 대학생 교사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일을 해본 경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경험하기 전과 후의 저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5개월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 마음속 소리를 실천하게 만드는 용기를 가지고.

백경훈 부대표 청년이여는미래

인턴 김영철은 청년이여는미래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자세와 태도를 늘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청미래의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했고,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서도 상근자 못지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서든 좋은 인재가 되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내일을 기원합니다.



학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

나이
24

장래희망
NGO활동가

좌우명
행복하게 살자

인턴십 수행기관
청년이여는미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등산 친구다.
실존하는 산과, 교육이라는 산과, 인턴이라는 산을 같이 등반했던 추억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기 때문이다.



비영리를 꿈꾸는 자라면 꼭 거쳐가야 할 아산 프론티어 유스!

김예진

막바지 대학생 때 쏟아내고 싶었던 나의 열정을 담아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홍보물을 처음 보았을 때는 지난 5월, 마지막 대학교 축제 시즌이었습니다. 대학 축제의 뜨거움 속에서 곧 졸업하면 이 축제에서처럼 느껴지는 청춘들의 끝없는 열정, 패기를 이제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에서 아산나눔재단의 처음 보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우연히 보았는데 대학생들 유종의 미를 나의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장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원으로서 나의 무한 발전, 인턴으로서 첫 직장생활

사실 제가 배정된 기관은 우선적으로 원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격 했을 때에 비해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 인턴십 초기의 당찬 모습과 포부와 달리 현재 인턴십 수행기관에서 일하며 나의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더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과 준비부터 사무실로 계속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내빈 등을 상대하는 것은 공경하고 반기는 마음만은 부족했고, 동시에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 머릿속으로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똑딱 해낼 수 있는 숙련된 슈퍼 인턴의 같은 날이 갈수록 험난했습니다. 한편,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별로 없던 나였는데 이젠 어르신들을 무작정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보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수많은 날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의식주 등 생활 전반을 요목조목

신경 써 드리며 하루라도 더 안락하게 사실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하며 교과서에서만 간략하게 봤던 참고자료가 내가 처리 해야 할 서류가 되어서 반갑기도 했고 정말 실전이 되니 긴장 되고 실수도 해서 담당 선생님께 죄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미숙한 모습과 실력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여주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기관 선생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한 여행은 아득한 추억이 되어 희망으로 부른다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닌데 아프유 교육장에서는 내가 직접 두발로 뛰어 다닌 것만큼 이상의 새로운 세상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어려운 명사 분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 오셔서 영감을 주시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졸음이 올 때도 있었지만 교육이 끝나는 저녁이면 살면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다니 하면서 피로함에도 교육 날 하루하루가 엄청 뿌듯했습니다. 잘 몰랐던 비영리의 여러 분야를 알게 되거나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 현장,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피부로 느껴지는 신선한 충격이 나를 일깨웠습니다. 하루하루 또 이모저모 나의 시야가 넓어져서 4년의 대학생활 못지 않은 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비영리 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연하

게 누구를 도와주고 내 직업을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가치 있는 일로 갖고 싶다는 가벼운 관심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프유를 통해 꿈꾸는 인생은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고, 새로 생겨나는 사회문제는 때마다 고민하며 함께 해결하여,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활동은 대학시절 잊을 수 없는 열정과 패기 넘치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모여 다시 힘을 합칠 날을 상상하며 마무리 되어가는 아쉬움을 기대로 채워봅니다.



이민경 사회복지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예진 쌤~ 무더운 여름날, 작고 귀여웠던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요~ 동그란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아 질문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열정이 보였고 기대가 되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장거리 출퇴근이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인턴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 고맙고 대견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관내 행사가 하반기에 물리면서 이런저런 큰 행사에 함께하면서 고생도 많았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어요!! 인턴 수료 축하해요!!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화이팅 넘치는 선생님의 모습 기대할게요!



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5

장래희망
사회복지사

좌우명
하루를 보고 오늘을 산다

인턴십 수행기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세계로, 세상으로, 미래로
나가는 문이다.
멋진 동기와 명사 분과
교류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야를 무한정 확장 하여
새롭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발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가꿈은 눈치가 없어도 괜찮아

김용은



학교

송실대학교
금융학

나이

25

장래희망

은행원

좌우명

인생에 멀리건(mulligan)은 없다

인턴십 수행기관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텀블러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텀블러처럼, 자신이 가진 신념을 곳곳하게 지키며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처음 유스에 지원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소셜벤처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던 그 때, 그저 NGO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돌하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인큐베이팅팀으로 배정을 받아 인턴 생활을 하게 된 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팀과 함께하면서 소셜벤처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없었지만, 나이가 비슷한 청년 대표들을 만나면서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기숙사 임하는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셜벤처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 대표님은 공실을 활용하여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타인을 위해 자신이 겪은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셜벤처에 대한 저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켜 준 촉매는 정기교육에서 만난 사회적기업가 특강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몬드'는 지속적인 수익성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셜미션

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소셜벤처가 '이상적인 창업 모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공한 소셜벤처가 수천개 중에 하나인 것을 (인턴생활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소셜벤처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게 된 것과는 별개로 인턴 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 남들보다는 눈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회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달은 그냥 눈치밥만 먹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것이 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 필요할 때 휴가를 신청하는 것, 저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 이것들은 절대로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NGO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때문에, 인턴의 권리를 찾으려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스 프로그램을 마치는 이 순간 한국 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자리를 갖지 않더라도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한다." 지금의 유스는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기에 유스는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유스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며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잡아,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원태 팀장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용은씨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많은 행사, 교육들을 앞두고 조금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용은씨가 슈퍼맨처럼 나타났던 기억이 나요. 인턴 마지막까지 제 몫을 척척해 주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그리고 막내답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웠어요. 용은씨라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무실로 놀러와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첫걸음 감사한 경험

김지수

시작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잠시 잊고 지냈던 처음의 포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저는 '다초점 안경'을 가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서, 묵발 짙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높은 턱, 시인들에게만 보이는 길가의 작은 들꽃들... 저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화려하게만 보이던 세상 뒤 어둠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안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제 상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의 나

시인들이나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



수적인데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잠재워진 감정적인 부분에 다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덮어놓았던 상처들, 모른척 하고 있던 저의 약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인지 등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에 답해가며 타인의 행복뿐 아니라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반자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동반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다른, 아프리카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너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라는 말을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 잡아주는 동지가 생겼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 잡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선배들이 생겼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이겨내기 힘든 고난 속에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상사에게 혼나기도 했고, 처음으로 느껴본 책임감, 실적 혹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 등을 느끼며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에서의 정주영 회장님의 일생이나 비영리 분야 선배들의 강의를 포함한 여러가지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성장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그 실패를 이기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분명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실패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는 정주영회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앞으로 있을 힘든 일도 돌파할 힘을 얻었습니다.

주사위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의 꿈길에서 던진 첫 주사위였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그려오던 비영리라는 분야에 대해 용기를 내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 아직 1이 나왔을지 6이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오면 이 주사위를 던진 것이 잘 한 일 일지, 못한 일 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사위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 도전해봤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었어도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며 '아, 그 일을 참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막상 해보니 내 길이 아니었더라'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한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아산나눔재단과 인턴 기간 동안 저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챙겨주신 다시함계상상담센터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혜미 팀장 다시함계상상담센터

김! 지수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지! 성과 미모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큰 두 눈을 깜빡깜빡하며,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수! 수한 외모와 달리 클럽을 열망하고, 애인을 빠르시일내에 찾아야 한다는 그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더 애뜻했습니다. 그녀가 애인이 없는 이유는 사회를 향한 호기심 레이터가 아주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람에게 관심이 많고,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것인가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명확했던 그녀는 때론 울드한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랑! 낭한듯 하나 크고 우렁한 목소리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행복에 젖어들 즈음 해! 해같이 빛나던 그녀는 우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을텐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소화하고 고민하던 그녀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만나겠지만 잘먹고 잘살기!!!



학교
홍익대학교
법학

나이
23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가

좌우명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인턴십 수행기관
다시함계상상담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번개탄이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불을 붙여주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들기

김지수

나에 대한 믿음

학교에서 저는 늘 점수로 판단되었고 점수가 곧 저이자 제가 곧 점수였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뒤쳐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고 늘 남과 비교하며 남들 만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지원서를 적으면서,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평가 받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을 소개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뽑혀 처음 교육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된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점수가 아닌 저 자체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저는 스스로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2주간의 사전교육, 그리고 격주로 받는 교육에서 실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나누는 시간, 저의 미래를 그리는 시간,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같이의 가치

그리고 '같이'의 힘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팀 과제에서 다들 쓰디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무성익한 팀원이나 프리라이더로 인해 마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달랐습니다. 캡스톤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끼리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저는 책 소모임에 들어가 격주로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사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동기와 함께 하니 즐거웠습니다.



함께 하는 성장

또한 5개월간의 인턴 생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라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다른 유스들과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일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매우 멋졌습니다. 저 또한 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었던 모금 분야에서 최고의 베테랑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만난 좋은 상사와 선배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단순히 인턴십 과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라 생각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직장 상사, 사회적 기업가, 창업가 등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었고 저 또한 앞으로 들어올 아산 프론티어 유스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처음, 우리 지수인턴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더위가 사무실 입구까지 입질을 할 때였는데 벌써 그 더위는 줄행랑을 치고 반갑지 않은 겨울이란 놈이 내 외투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걸 차단하려고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도 갑니다. 인턴 과정속에 서로의 공통분모인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은 부족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 대화가 조금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인턴 연장하고 사무실 이전한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하기 없기! 여기에서 사회사업가로서 또, 최선의 모금 사업가로서 기초를 잘 깔고 닦아 사회사업 실천가로서 잘 성장해주세요. 인턴 김지수를 생각하며.....

6개월 그리고 6초

김진영

어느새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12월의 중반입니다. 처음 안국역 지하철에서 내려 정장을 입고, 너무도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언덕을 오르던 날씨와 다르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생의 거의 한 주기를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면접을 봤던 6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코피온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신청을 하기 전부터 코피온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했고, 사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신청한 계기 또한 코피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턴 생활의 시작은 다른 유스들과는 다소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단체이기에 설렘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실수, 잘못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난 6개월간

저의 기억은 온통 일과 관련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프로그램에는 제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난 6개월간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2주 동안 일에만 빠져있다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피처 같은 장소였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 도피처가 됐다는 의미를 넘어서, 행정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개발협력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숫자와 성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면 잠시나마 일에서 벗어나서 제가 들어가 있는 세상 이외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코피온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맡은 일은 캄보디아와 몽골에 있는 지부의 담당자였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나가게 되면서 인계를 받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제 모든 사업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지만, 코피온에게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 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먼일인 것 같습니다. 이후 코피온과 제가 어떻게, 얼마나 같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비록 그게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코피온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코피온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양연수 부장 코피온

사회복지사나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지만 그 변화의 확산은 나를 보고 감동한 다른 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에 먼저 감동하지 않고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명감이고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여 드러나고 그 빛에 감동한 이들로 세상은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분하고 우직한 모습으로 주변 환경과 주변인들에게 귀가 열린 진영

간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간사님이 성장하는 만큼 세상이 성장하고 간사님이 변화되는 만큼 세상이 변화되고 밝혀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사님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귀한 인연에 감사하고 간사님의 앞길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기관에서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매일 매일 출근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학교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6

장래희망

사회사업가

좌우명

언어는 정신의 지문

인턴십 수행기관

코피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물이다.
내가 힘들 때 큰 도움을 주었다.
나를 식혀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한다.



NGO를 만나다.

김해동



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

나이
26

장래희망
행복한 아빠

좌우명
행복하게 살자

인턴십 수행기관
비전케어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독감이다.
업무가 많아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쳐 인생에 큰
면역력을 얻은 것 같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30명이 함께 출발선을 넘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모두가 함께 끝마칠 순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 동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이 기존에 NGO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해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NGO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약간은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NGO의 현실을 맞닥뜨리니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NGO에서 일하면서 더욱 NGO가 어떤 곳인지 느끼고자 들어왔는데, NGO의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부족한 상사도 있고,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기관운영이 힘든 곳도 있는 등 여러 사례를 들으며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했습니다. 첫 시작은 대부분 A4 종이 채우기, 짐 옮기기, 청소하기 등 단순 업무였습니다. 사실 인턴이 막내로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단순 업무만 계속시키는 등 친구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격주마다 교육을 받을 때 서로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격려하고 아산나눔재단 담당자의 도움으로 대부분이 무사히 고민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격주로 각자의 직장이 아닌 아산나눔재단에 모여, '캡스톤'이라는 활동을 5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프로젝트의 방향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했지만, 이 역시 동기를 그리고 프로젝트 담당 강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가며 잘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만족한 상태로 활동을 진행하게 됐고, 지금 이 소감문을 쓰는 순간까지도 각 팀의 프로젝트들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육 이후에 여러 비영리 분야 선배님들이 해주는 강연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음으로써 나의 다음 방향을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30개의 기관 중 비전케어에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내 단순 업무는 인턴인 제 몫이지만, 팀장님을 도와 다른 업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KOICA에서 지원받는 '우간다 안과 의료 보건 강화 사업'의 회계업무이지만, 사업의 대부분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소형 기관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 회계보고, 공문 등을 어떻게 쓰는지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주사업인, EYE-CAMP를 우간다로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백내장 등 안질환을 치료해주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또 한 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현지에서 활동한 훌륭한 선생님들 보며 심장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살아가

야 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게 됐고 진로 또한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은,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비전케어의 인턴 생활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전케어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지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전케어에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최인에 팀장 비전케어

많은 걸 배우진 못했겠지만 함께 했던 시간이 서로에게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어디서든 잘해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게 왜 그러죠?'라고 수없이 묻고 깨알 웃음으로 존재감 확실히 각인시켜주던 그대의 자리가 아쉬울 것 같소- 오자마자 터진 일폭탄으로 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준 그대의 수고를 잊지 못할거요. 여기서 쌓아올린 지결의 경지로 당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 정말정말 수고 많았고 어디가든 비전케어에서의 시간을 자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길...Chao!

부산 청년, 비영리에서 길을 찾다

김혜란

‘비영리 영역의 생태계가 활발한 곳의 모습은 어떨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발을 담게 된 비영리 영역에서의 활동. 약 2년 전부터 부산에서 청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갈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마냥 좋은 뜻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했고, 하나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더욱 입체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낸 순간부터,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모락모락 피어날 때 즈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같이 할

동하는 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합격하는 것 뿐이라는 간절함 아래 지원했고 기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몸담았던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일반 시민, 단체, 기업 등에게 ‘자원봉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 다양하게, 더 가까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저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기업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롯이 ‘자원봉사’가 주는 보람 하나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하던 활동들은 이곳 사람들이 하던

자원봉사 활동과 절차가 많이 닮아있었고, 어쩌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라는 결론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의 근무를 통해 동료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리고 자원봉사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캡스톤 프로젝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교육이었습니다. 관찰자와 리더라는 역할이 추가되어 진행되는 조별 토론에서부터, 자료 조사를 위한 인터뷰, 제안서 작성까지 실무에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캡스톤 프로젝트 교육을 하는 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어쩌면 나는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했으며, 이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으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캡스톤 프로젝트는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끝이 보입니다.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저 자신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기 전보다 성장했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산나눔재단 관계



학교
동아대학교
국제학

나이
25

장래희망
민간중간지원조직(부산) 설립

좌우명
우리의 바람이 바람이 되어

인터십 수행기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탈(脫)중력이다.
익숙했던 생활(중력)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또 다른 세계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분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기들, 가족, 지인 및 친구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합격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을 응원해줬던 ‘프로젝트 바람’의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수연 사회복지사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정수기 생수통도 가뿐하게 뒤엎는...
아주 씩씩하지만... 누구보다 수줍음이
많고 어린 혜란씨~
올해는 행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퍼레이드 줄 잡고 맘 뽀뽀~ 흘리며
반포대로를 누비고...
뽀족구두 신고 구청 강당을 이리뛰고~

저리뛰고~ ㅠ.ㅠ 고생한 만큼 보람도
되었고, 덕분에 우리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아~ 혜란씨가 함께 해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고마워~
그리고 너무 수고 많았어. 첫 직장
경험이 쉽지않은 않았겠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혜란씨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신감있게~
당당하게~ 파이팅~!!!!

아산 프론티어 유스 1기라는 계단을 오르고서

문유선



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

나이
25

장래희망
사회공헌캠페인기획자

좌우명
Work hard, Be kind

인턴십 수행기관
함께하는시민행동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성냥이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열정에 불을
지퍼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난 7월 입단식에서 제 이름과 함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같이 불렸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날 시민행동에 대해서 온종일 찾아볼 정도로 낯설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누가 시민행동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명함을 만들 때 김민철 선배님께서 '인턴' 말고 다른 직함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이 아닌 '연구원'으로 5개월 동안 시민행동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무실에 계신 모든 분이 제가 연구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며 같이 고민해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고민하고자 하는 일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라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저 역시 CSV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 오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따뜻하



게 대해 주신 김주일 대표님, 박준우 처장님, 채연하, 신태중, 최승우, 정홍순, 김민철 선배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행동과 함께하며 이 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여서 좋았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

저와 또 5개월을 같이 했던 아산나눔재단의 이승복 팀장님, 천성우 매니저님, 최윤석 인턴님과 캡스톤 강의를 해주신 윤상석 소장님, 그리고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처음이에요' 라며 같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만들어 나가자던 팀장님의 말씀처럼 단원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신경 써주셨던 아산나눔재단의 배려와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소집 첫날,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초면임에도 언제 한 번 만났던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해주는 단원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를 웃게 하는 재미있는 친구들이지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멋있는 친구들이 생겨 이들과 같이 있던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제 꿈을 향해 이제 겨우 한 계단을 오른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계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김민철 팀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했던 5개월의 시간, 시민행동 식구들이 그랬듯 너에게도 뜻깊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바래~ 항상 응원할게!! 비록 인턴기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 바라며 2016년에도 파이팅!!

아이들보다 더 아이 같았던 내가 ‘선생님’이었던 시간들

문지은



저의 인턴십 기관은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이 아름다운세상입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이웃 리치 등 기타 외부적인 활동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기를 쓰려 하니 처음 기관에 배정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많았던 출근 첫 날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출청소년'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도 수업에서 배우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에 선입견이 많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기관에서 보낸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순수하고 해맑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 준 것만으로도 친근감을 느끼고 다음 날부터는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아주는 애정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냈던 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쉽습니다. 5개월 동안 저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지만 사실 제가 아이들로부터 배운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저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며 조언을 구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저보다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고민하며, 분명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항상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무기력함과 불규칙성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잘 따라주지 않는 모습에 속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청소년만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 제가 속한 세상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음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턴십 기간 동안 제가 보지 못한 사회문제들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슈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제게 이후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2주에 한 번 아산나눔재단에서 받는 교육이었습니다. 많

은 NGO 리더들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제 삶의 why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교육 때의 모든 강연은 제가 NGO 차세대리더로 성장하는데 좋은 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6명의 대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분명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세션을 마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팀을 위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션을 진행할 때마다 다른 입장들이 매번 등장해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 있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타협하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캡스톤 수업에서 긴장감이 넘쳤지만 그만큼 팀원들의 성향을 더 잘 알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캡스톤에서 상이한 입장들이 많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기들은 모두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동기들 덕분에 제가 인턴십 과정에 겪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5개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5개월간 저에게 열정을 펼칠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 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5개월간 의지하였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기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3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가, 국제사회복지사

좌우명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인턴십 수행기관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햇팩이다. 따뜻했지만 추위로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는 핫팩처럼 차가웠던 나의 꿈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줬기 때문이다.



박희태 실장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오늘의 경험이 내일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인턴 직원으로 첫 만남을 시작한 뜨거운 여름이 생각납니다. 자그마한 체구로 조용히 들어오는 지은씨의 모습은 너무 여리고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초롱초롱 했습니다. 배우고자 했던 마음과 의지가 강하게 느껴져,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심터 친구들과 친밀하게 언니처럼 잘 지내고 아이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며 고마웠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의 고민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보기 위한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멘토링 시간을 통해 저 또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제 지은씨가 없는 법차가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지은씨의 삶에서 아산 재단과의 만남과 우리 기관과의 인연이 밑거름이

되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고민해 보는 일련의 과정 모두 지은씨의 삶에서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지은씨의 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우리 기관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깨동무하고, 한 발자국 앞에 서서 6개월을 추억하며

박광영

스물다섯 살. 하루하루 같은 시간을 살아왔기에 어느덧 어른의 자리에 조금씩 서게 된 저는 발걸음을 내딛기가 무서웠습니다. 찍히는 발자국마다 저의 무게가 온전히 담겨있음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질문답게 부딪히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물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 일 년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개인적인

활동이었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루가 많은 사람과 만나며 쫓겨졌고, 다양한 목적들을 좇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앞에 너무 많은 목적이 쏟아지면서 가우뚱거리기 일쑤였고, 물음 앞에 당당하기는커녕 땅을 보고 걷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간헐적으로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것이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아리 후배의 소개로 우연히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주어지는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 낯설었지만, '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 년 동안의 나였다면 철저하고 민하며 두려워했을 텐데 '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몰의 중턱에 서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십 명의 아이들이 교육장에 앉아있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에 취해있는 듯, 들떠있었지만 약간의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꽃

봉오리가 터지기 전처럼. 2주간의 교육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어둑어둑한 교육장 안에 들어오던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긴장감을 떨치고 조금씩 웃어가는 나를 발견했고, 나누어주는 과자를 한 봉지씩 뜯는 것은 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각자의 기관으로 흩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로 뭉쳤던 때이기도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고초를 겪었지만, 처음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모두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유치함을 과시하듯, 힘들었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며 따뜻함을 주고받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기관은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배정되기 전 어렴풋이 '여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곳으로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도시락 배달과 방과 후 교실 강사였고,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파리가 많은 계절. 식당에 모여 앉아 있는 어른들이 파리를 잡기 위해 온 구석구석 뛰어다니며 파리채를 휘두르고, 도시락 배달이 끝난 뒤 마시는 믹스 커피의 달콤함 같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죠. 거대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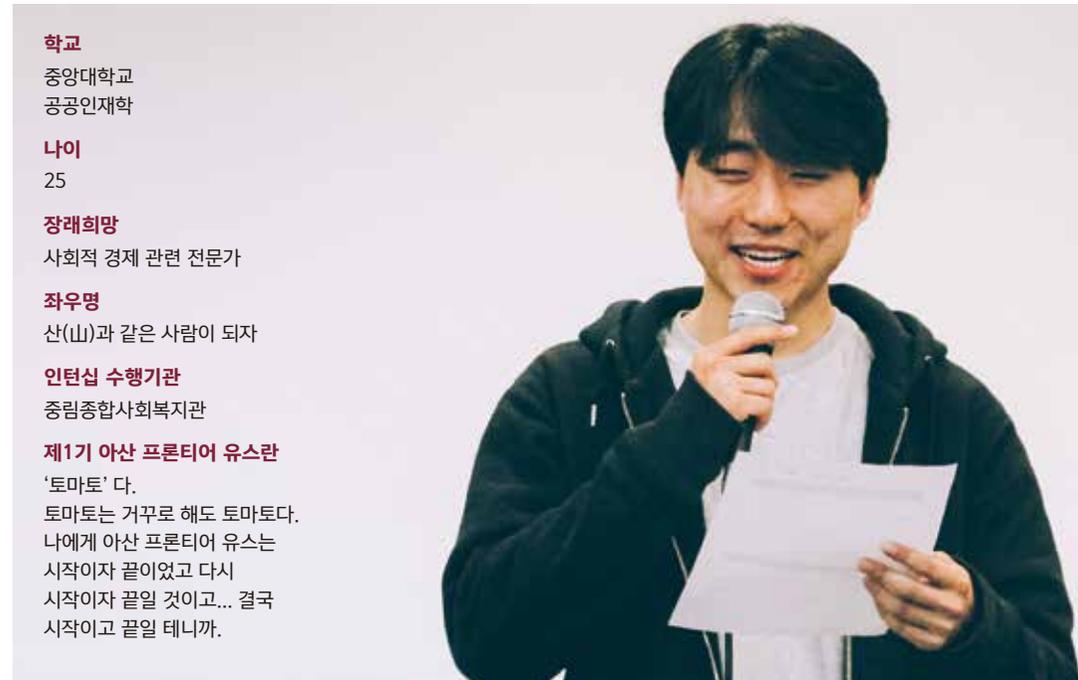
엇인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종간의 싱그러운 것, 그리고 향기가 나는 것.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은 정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cm자를 들고 딱딱 소리를 크게 내야만, 그제야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곁에 오래 남고 싶었습니다. 자습시간에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는 게 행복했고, 수업시간에 쏟아지는 질문에 난감해하는 내가 좋았습니다. 나쁜 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수했고 솔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도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였을 지도 모르지만.

비영리 분야.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르겠

습니다. 지금도 삼십 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은 쉴 새 없이 떠돌고 있고, 사진첩엔 한눈에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얼굴들이 한가득입니다. 그 속에 저도 있습니다. 함께인 것에서 저를 찾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유태인 팀장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속스러운 듯한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리는 박광영 선생님!!
우리 팀 막내이자, 청일점으로 누나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고생 많았어요~~
짧디짧은 6개월이었지만, 저와 우리 팀과 우리 기관에 많은 도움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드리고,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

나이
25

장래희망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좌우명
산(山)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인턴십 수행기관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토마토' 다.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시작이자 끝이었고 다시 시작이자 끝일 것이고... 결국 시작이고 끝일 테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책임

박서윤

작은 관심 속에서 시작된 의미있는 활동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한 학생으로서 저에게 NGO, 비영리 분야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관심사 중 한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NGO단체에서 짧게 현장 실습을 해왔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번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채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앞으로 제가 비영리 분야에서 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이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은 비영리 분야에서의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턴을 시작하기 전 사전 교육 프로그램들과 인턴활동을 하면서 진행되는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NGO기관에서 하는 인턴활동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관에서의 인턴십 활동만큼이나 기대 되었습니다. 매달 두 번씩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캠프톤 프로젝트와 다양한 NGO기관 방문 및 비영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연사들의 강연 자리를 통해 비영리에 대해 더 깊고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캠프톤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마다 토론 내용은 더 단단해지고 팀원들의 더 풍부해지는 생각들과 점점 발전하는 토론모습을 보면서 매 세션마다 함께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션이 끝날 때 마다 작성하는 리플렉션 메모는 그날 진행한 토론 내용과 자신의 활동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저는 서른 개의 다양한 NGO 기관들 중 중증장애인들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스마일재단이라는 NGO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많은 분야를 접해왔지만 장애인 분야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도 해서 스마일 재단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자신과 잘 맞고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나 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야나 기관이 되었든지 NGO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아래 직접적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사

회에서 편견 없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장애인들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장애인에 대해 달라진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5개월 동안 스마일재단에서의 인턴십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에서의 사소한 일부터 문서 작업과 직접 대상자를 만나는 일까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NGO에 속한 사람으로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일재단의 직원 분들과 NGO현장에서 만난 많은 실무자 분들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경험이 앞으로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 이들과 함께해서 가능한 일,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경 주임 스마일재단

긴 생머리에 가녀린 모습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옛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왔네요. 처음 겪는 일들에 많이 힘들었을텐데 모든일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함께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니 어디에서든 무슨일을 하든 다 잘 해낼거예요. 앞으로는 점심 메뉴 고르는데 많이 고민하지 말고 맛있는거 많이 먹어요^^ 항상 건강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할게요. 서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5개월이었어요^^



학교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3

장래희망
교육개발 NGO 활동가

좌우명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인턴십 수행기관
스마일재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연결고리이다.
비영리에 관심 있는 대학생,
비영리 선배님 등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뜻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우리가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박혜진

작년 생일, 암스테르담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조용한 하루를 보낼 것 같다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라더니. 올해 생일,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아침에 일어나 우리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여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열한시였습니다.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며 복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 어떤 단어도 친숙하지 않았던 내가 인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항상 이진승 센터장님께서 “이용자 분들이 안전하게,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을 되새기며 출근했습니다. 서투르고 어려웠지만 함께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 주신 걸까요. 인턴 끝나는 날을 아시고는, 학교 가지 말고 나

오라고, 땡땡이치고 오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 한 이용자 분이 생각나 가슴이 찡해옵니다.

생각해보면 센터에서 한 일들은 다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몸치 입에도 제일 잘하는 척 에어로빅을 신나게 따라 했습니다. 내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모르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드렸고 내 방도 잘 안치우면서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나이

24

장래희망

국제개발가(교육분야)

좌우명

순간을 소중히

인턴십 수행기관

우리주간보호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고삼차다.
과정들이 무척이나 썼지만 유익하고 배움이 많았던, 마시고 나니 힘이 나는 차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지른 것은 꼭 치우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글맵스와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중간에서 서포트 하기도 했습니다. 컴패션의 남상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구글맵스가 구글엑스인줄 알았던 문외한이 수 차례 교육을 통해 센터 선생님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다양하게 배우며 성장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지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며 한없이 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즈음 찾아오는 아산나눔재단에서의 정기 교육시간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도 비전도 다른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시야를 넓혀주며,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전마다 애증의 캡스톤 세션은 큰 압박감을 주었지만,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맞추어나가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더하여, 추구하는 리더상과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 때 주어진 다양한 기회들 속에 제게 가장 영향을 미친 건 강연이었습니다. 많은 연사들의 이야기기 초반에는 와

닿지 않았었습니다. 별 생각이 들지 않았고, 질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때마다 다른 단원들은 망설이지 않고 질문하며, 생각하는 모습들로 내 스스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꾸고 있는 꿈이 내겐 너무 과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변명을 만들어 내고 있던 저를 깨워준 멋진 사람들과 함께라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쉽지 않았던 인턴생활, 센터 선생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이용자 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배웠고, 배우고 익히길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말이 조금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다가 금세 다시 웃으며 나타나, 세상 모든 것에 예뻐다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하고 따뜻한 우리 이용자 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근우 감독의 영화 '577프로젝트'에 이런 내용의 대사가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의 목적지인 해남 땅에 도착했는데, 금은 보화라도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렇지만 더 뜨거운 열정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

고. AFY의 끝이 눈 앞에 보이는 지금, 당연히 금은보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작은 소란에는 끄덕하지 않으며, ‘우리’ 이용자 분들을 위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선생님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니 한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꽤 잘해낼 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TH이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에. 여전히 저는 아니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해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의 우리가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박현주 사회복지사 우리주간보호센터

지난 8월 우리센터에 비타민과 같은 “혜진”샘이 온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생활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예요. 혜진샘으로 인해 우리 이용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많이 행복했었다고 전해드리고 싶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려요. 으랏차차!

함께 할 줄 아는 나를 만나다

방기민

2015년 3월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나만의 키워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경, 보건, 교육, 기후변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소중히 여기게 된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가지입니다.

습니다. 즉,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살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거야'라는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건강한 삶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보

육과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많이 겹쳤고, 그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속감을 단 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팀을 이뤄 일하다 보니 부딪히는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처음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한 첫 직장이니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여러 방향을 보고 배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언제 쓰이게 될지 궁금하고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학교 밖 친구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시야가 넓어 짐을 느꼈을 때입니다. 심터에서 매일 지내고 챙겨주시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많은 친구의 꿈이었지만 설문 결과를 매번 받고 정리하면서 친구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 친구는 저에게 속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며, 마음을 열어줘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렇듯 환경교육과 동시에 다른 직업군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동기들과 아산나눔재단에서 정기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단원에게 그렇듯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GO 활동가, 청년 창업가, 영화감독,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동기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왜 이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들인지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기후변화는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여러 최 취약국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우리 인류에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파리 COP21에서 지구 평균기온 섭씨 2도씨가 넘지 않도록 인류가 노력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어난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갈 훗날은 지금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시급한 문제는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이라 생각했

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어떤 일을 하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찾은 곳이 바로 제가 지난 5개월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일했던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입니다. 3월부터 계속해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보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일체 고민 없이 지원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일하면서 훌륭한 직장 동료들을 만났고, 그들이 지향하는 환경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실로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이 된 첫날 각자를 소개하는 책자에 제가 썼던 말은 '사람이 재산이다' 였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마치는 이 순간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산

나눔재단을 설립하시고, 어릴 적부터 한 명의 같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환경교육센터, 아산나눔재단 그리고 소중한 우리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함께 제가 느낀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합시다! AFY 화이팅!

박지연 팀장 환경교육센터

방방곡곡 기를 널리 전해 주는 민첩한 방기민아 환경교육센터 잊지 마렴. 성공해서 우리 모른척 하기 없기다~?



학교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지구시스템·보건학

나이
28

장래희망
기후·보건
환경 분야 전문가

좌우명
사람이 재산이다

인턴십 수행기관
환경교육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일요일 밤 10시 15분이다.
끝날 것이고 월요일이
올 걸 알고 있어 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던 기회

양민아

나는 생명의숲을 이루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처음부터 환경단체, NGO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취업 혹은 공무원 등 흔한 취업준비생처럼 취업에 대해 고민하던 4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취업 문이 좁다거나 갈 곳이 없다'며 투덜거릴 시간에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하게 된 것이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다소 작은 마음과 의지로 시작한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특별했습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면서 경험한 것, 들은 것,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그동안 스스로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다소 무관심했던 제가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여러 사회문제들을 접하고 그중 하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 혹은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내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은 가장 일하고 싶던 기관인 생명의숲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생명의숲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 '도시 마을숲'과 '사회복지숲' 사업을 보조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 밑에 있는 옛날 골목길의 느낌이 가득한 후암동에서 진행된 마을숲. 아파트가 가득한 요즘 보기 드물게 골목길이 잘 남아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자연과 마을을 사랑하는 후암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가드너 분들의 가드닝 교육을 함께 하며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새로이 식물을 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원미현 활동가 생명의숲국민운동

새침하고 귀여운 미나언즈~민아!
2015년 생명의숲은 민아가 있어 충분했어!
민아와 함께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던

할머니들과 장난으로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던 사회복지숲. 사회복지숲의 대상지에 갈 때는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설계로 장애어린이들의 치유공간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도 자연과 녹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설계 중에 그런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고 활동을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숲에 참여하면서 텃밭이라는 작은 녹지만으로도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고, 숲과 자연도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업이라는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 조금 해하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보낸 시간은 한 걸음 물러나서 숲을 볼 수 있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인턴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신 생명의숲 활동가분들과 즐거움이 넘쳤던 동기들 역시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이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것 같아. 2015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민아가 하고 싶은 일,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생명의숲 활동이 밑거름이 되었길 바래. 천만가지 매력을 가진 민아의 멋진 꿈을 응원할게!~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

나이
24

장래희망
조경디자이너

좌우명
솔직담백하게

인턴십 수행기관
생명의숲국민운동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망원경이다.
전공과 알던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부터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우연에서 인연으로

윤정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돌아보면 하나의 우연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연히 길을가다 마주치게 된 아산나눔재단, 그 시점에 올라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공고, '비영리'라는 하나의 관심사로 모인 30명의 대학생 단원들, 비영리 분야의 수많은 멋진 실무자들, 처음 접하게 된 시각장애인 분야 등등.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2주동안 진행되었던 사전 교육 시간은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영리 분야에 여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는 모든 단원이 미쳐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환경 문제를, 누군가는 국제 문제를,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열을 올리며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들과 함께 하게 될 6개월의 과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주간의 과정이 끝나고, 처음 접해 본 시각장애인 분야의 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그곳에서 제가 맡게 된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이었습니다. 당장 시각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들을 위



학교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

나이

25

장래희망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좌우명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자

인턴십 수행기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3색볼펜이다. '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아산나눔재단'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밑그림에 불과하던 내 꿈을 3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색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도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복지관으로 출근하는 하루하루 그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도와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기기를 직접 다뤄보고, 관리대장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정신 없이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달쯤 됐을 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임대하겠다는 신청자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임대를 원하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며 상담 전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회복지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인사를 나누고, 반가운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비록 인턴이었지만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이 진짜 제 사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점점 친밀해지고, 복지관에서 한 명의 몫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나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30명의 단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기회를 통해 성장 할 수 있었던 지난 6개월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개월동안 부족한 인턴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줬던 모든 분께 감사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일동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류승현 팀장 | 5개월이 하루같이 즐거웠던 지난날! 떠난 자리가 너무 커보인다.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노인인턴으로 써주길!

교육팀 김상일 | 좋은인연이 되어서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고 남은 학기 잘 마치고 사회에서 또 봅시다.

교육팀 한은수 | 먼길 출근하느라 고생했어요 우리는 5개월 생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뺨을 알겠조 조망간 회전판 있는 중식당에서 봅시다.

교육팀 이현진 | 어떤 인턴이 올까 궁금했는데 펍 관창은 정현쌤이 와서 교육팀에서 많은 일들 하고 팀원들과 좋은 인연 추억이 되었어요. 훗날 잘한일이라 생각될거예요. 도자기 중식당에서 즐겨요. 우리 결혼할때 꼭 온다는 약속 지켜요. 고생했어요.

스물네 살, 한 호흡의 인생 공부

이민형

학교	나이	장래희망	좌우명	인턴십 수행기관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	24	사회복지사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서울YWCA	'홍삼액기스'이다. 매서운 현실에 축 처진 청년들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며 어깨 툭툭 쳐주며 건네는, 비영리분야의 짝한 노하우가 담긴 홍삼액기스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시대의 소외된 자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했습니다. 1여 년의 해외봉사를 마친 후, 그 열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의욕과는 별개로 저는 이미 지쳐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템포에 맞게 인생을 재단하는 일도, 시대에 아파하는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살아내는 일도 솔직하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이 시간을 겪어야 할까?' 소진된 나로 인해 누군가가,

더불어 저와 같은 나잇대의 청년들을 만나는 경험은 저와 이 세상을 반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제가 만난 대학생은 수많은 의무감과 경쟁, 마음 둘 곳 없는 외로움으로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은 이들을 보채기도, 선생처럼 가르치려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담당자로서의 욕심을 앞세우기 보다 그들에게 진정 어린 위로와 공감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하나의 멀고 먼 여정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가슴이 공감과 애정이라면 발은 변화입니다.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만으로 위로받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문제가 가득하다 불멘소리를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 무기력한 내 작은 인생이 작은 불빛 하나 반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내는 일, 곧 '실천'이었습니다.



혹은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5개월은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를 넘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만나, '사람'으로부터 배운 귀한 교훈입니다.

저는 청년 기후·에너지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기후·에너지 교육봉사를 나갔는데, 서울시 내 아홉 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익숙히 들었던 지역아동센터였지만 직접 찾아가 본 지역아동센터는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그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다양한 교사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사정과 모습은 달라 아이들 하나하나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꽃봉오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과 애정이 필요하여 심술 나 있는 아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은 아이, 유난히 사랑이 많은 아이... 이 아이들을 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

서울YWCA에서의 인턴생활은 업무적인 경험이 외에도, 활동가로서 큰 성찰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내가 커피 컵 하나 텀블러로 바꾸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제창하던 내가 실제로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던 그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인지, 말로만 외치던 제 신념이 초라한 공색을 나타내는 수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양선희 국장님과 멘토링을 통해 읽었던 '담론'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참으로 먼 여정이었습니다. 또

돌아보면 많이 지쳐있었던 제, 5개월의 시간 동안 무언가에 스며들 듯 이 모든 것을 겪고, 누리고, 즐길 수 있었던 까닭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희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분주한 가운데 작은 이를 챙기는 공황로, 그렇게 저는 그러한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매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와 여기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인생의 선배들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힘껏 살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개월 내내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셨던 서울YWCA 직원분들과 이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주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물네 살, 한 호흡의 인생 공부를 마무리하며, 훗날 이 시간이 되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운 내가 되어있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양선희 서울YWCA

참 반듯한 이민형 선생님에게! 해맑은 미소에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웃고 울며 신나게 보낸 5개월! 시간의 흐름보다 더 그윽하고 깊어진 선생님의 눈매와 마음발음 느끼며 감사합니다.

늘 환하게 웃으며 허리 숙여 사람을 대하는 겸손, 일에 임하는 진지함과 성실함,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며 미래를 숙고하는 모습... 선생님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덕목들이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서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최고였어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우물 밖 NGO세상을 보다

이혜지

처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할 때 적어놓았던 포부를 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6개월 전의 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배정될까?' 그곳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름 혼자 오랫동안 배낭여행도 다녀보고 카페 창업에도 도전해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차있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긴장이 앞섰습니다. 그때 스스로 다짐한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생'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안영이' 같이 실력 있는 인턴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되더라도 '장그래'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인턴이 되는 것이 처음 출근길에 자신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인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자신과의 약속은 지킨 듯 합니다.

제가 배정된 곳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정보홍보팀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이 팀장인 부서였습니다. 든든한 멘토이자 상사 밑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홈페이지 관리, '오늘의 청소년'이라 불리는 청소년 잡지

발간, 상장 및 표창장 제작 등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청소년' 겨울호는 제가 직접 주제 선정부터 저자 섭외, 원고 청탁, 원고 수합까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쓸데없이 긴장을 많이 해서, 혹은 덜렁대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려워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내기보단 북돋워 주시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던 청협 분들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NGO에 대한 생각이 정말 협소했다는 것입니다. 원두 공정 무역 가로서의 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밟을 수 있는 경로들이 얼마나 무수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수행 전 들었던 어떤 경험든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크게 영

향을 줄 것이라는 강연 내용처럼 이번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 삶에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눈뜨게 된 길들을 더 공부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금 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원두 공정 무역을 통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보내온 5개월의 시간은 짧고도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소감들을 이 짧은 글에 담으려다 보니 두서없이 정리된 듯하지만 이번 한해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조중훈 팀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혜지씨, 정말 고생 많았어. 8월에 근무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흘렀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 믿어. 우리기관에 많은 인턴들이 근무했지만, 혜지씨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모든 일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로는 자진해서 야근까지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간 아산나눔재단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100% 활용해서 혜지씨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래. 항상 파이팅하고 앞날에 좋을 일만 생겼으면 해. 수고 많았고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



학교
경희대학교
국제학

나이
23

장래희망
공정무역가

좌우명
나를 넘자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다이빙이다.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뛰어들어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었다.

젊은 NGO 활동가, 아산에서 답을 찾다

전지민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더 소중한 세상을 배우다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사업장 라운딩을 시키는 이유가 뭡까요?”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 도착한 안양에서, 입사 일주일 차의 인턴은 생각지도 못했던 생소한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더듬더듬 내어놓은 대답은 이것.

“각 산하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운영부가 각 산하기관과 어떤 사업을 함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순간적으로 내뱉은 그 말이,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서 보낸 5개월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될 줄은.

18살 때 다녀온 해외봉사 이후 5년간 ‘국제개발’이라는 한우물만 팠노라고 늘 말해왔지만, 사실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스물두 살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1년간의 휴학을 결심했던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개발 분야 안의 수많은 세부분야 중,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의 분야’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봤을 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게 모험과도 같은 도전입니다. 뚜렷한 지원 목적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야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저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내며, ‘결국 내가 했던 고민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가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답’ 자체였지만요.

5개월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배정되고, “그 기관은 완전 사회복지 기관인데 왜 너를 뽑으셨을까?”라는 말에 출근 전날까지 고민했으며, 중점적으로 맡게 되는 업무가 국제사업의 보조 업무임을 알고 ‘나를 뽑으신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뻐했다가도,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명받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걷고 있던 이들을 만났고, 앞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29명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세 개의 부서를 옮겨 다니며 제가 기획한 사업이 타 부서에서 끝없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역할과 타 부서와의 협업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역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개발을 가장 큰 범위로 생각해오려 그 안의 분야들을 탐구하려 했지만, 사실은 국제개발보다 더 큰 분야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의 범위로 국제개발을 생각해야 한다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정기교육 강의들과 동방사회복지회에서의 인턴십은, 세상에 대한, 또한 저 자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디딘 그 한 발짝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자.’ 일과 관련된 면에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던 인턴이었지만, 적어도 그 다짐만큼은 지키고 왔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부장
동방사회복지회

지민씨와 보낸 5개월이란 시간이 벌써 혹은 지나가고 많은 동료들이 그녀를 아직도 찾고 있음을 보면 그래도 동방사회복지회에서의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 같아 괜히 제 자신 마음도 뿌듯한 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먼저 많은 시간을 더 같이 고민하고 일하지 못함에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특히 코피노아동란츠의 병원비 모금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한 Generalist가 되는 작은 기반이라도 만들었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학교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

나이
22

장래희망
국제개발 분야 종사자

좌우명
낯설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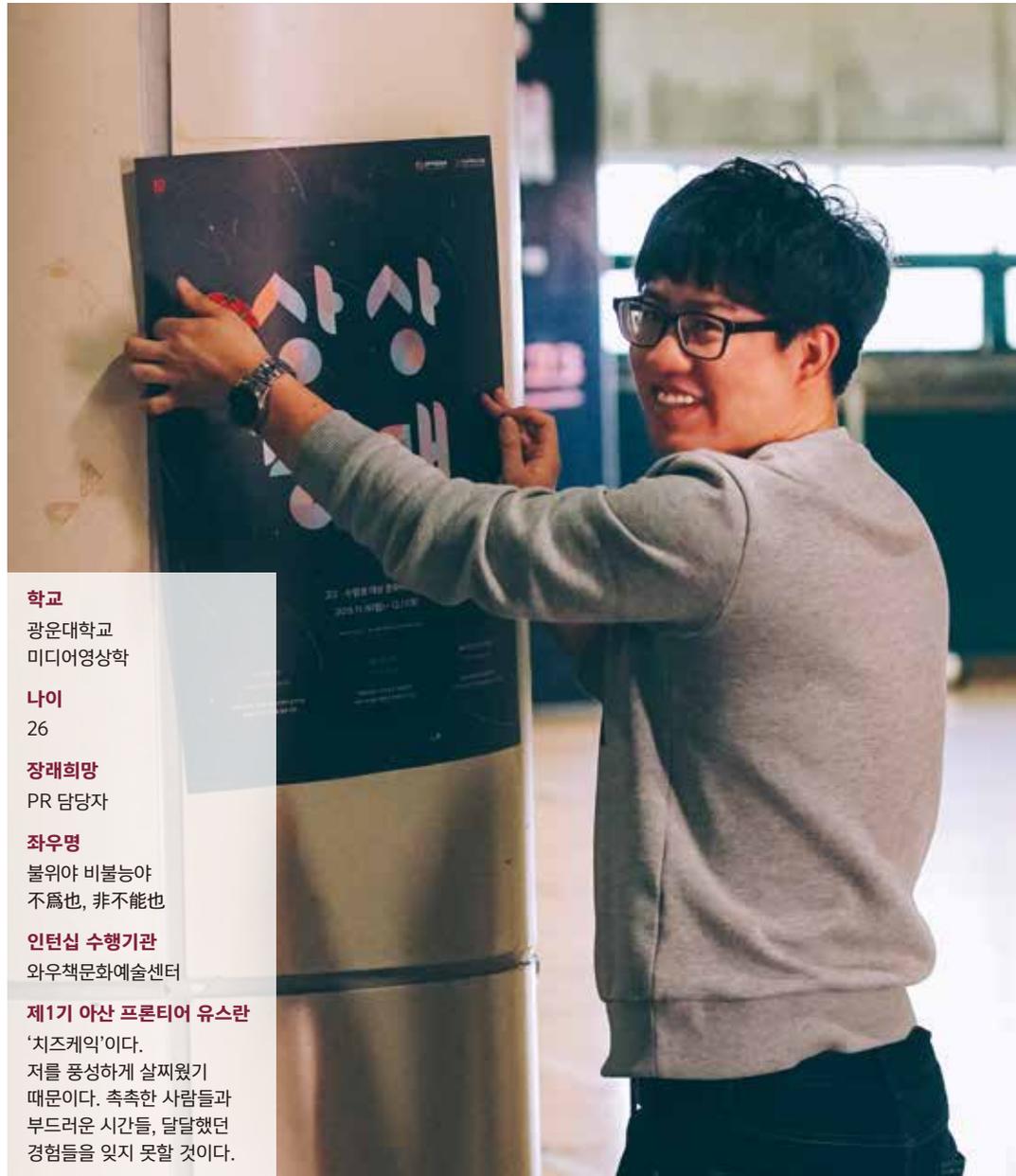
인턴십 수행기관
동방사회복지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대나무숲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내를
단원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5개월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와우!

흥도 많고 일도 많은 축제의 장

정세희



학교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

나이
26

장래희망
PR 담당자

좌우명
불위야 비불능야
不爲也, 非不能也

인턴십 수행기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치즈케익'이다.
저를 풍성하게 살찌웠기
때문이다. 촉촉한 사람들과
부드러운 시간들, 달달했던
경험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햇병아리 인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NPO 희망제작소,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 소셜벤처 워터팜에서 인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또래들보다 비영리 섹터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생활 경험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와우책문화예술센터(이하 '와우')의 배치를 받고 일 해보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음을 틀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번번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실수들로 인해 그냥 평범하고 소심한 인턴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자리에서 보이는 월드컵 경기장의 푸른 잔디 구장을 보며,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와우! 골방에 갇힌 책과 인턴을 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신한 월드컵경기장 잔디 구장을 달리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와우의 직원 분들께서 차근차근 업무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지만 와우만큼 체계적인 조직은 없었습니다.

8월 처음 출근하자마자, 10월 초에 있을 제1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사무실은 정신 없이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도 꾸준히 제 몫의 일은 주어졌고, 어느새 사람 많은 축제보다는 홀로 있는 집이 좋아 축제 근처에도 잘 안 가던 저는 어느덧 축제기획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준비 기간에도 바빴지만 축제진행 기간 또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행사장이었습니다. 행사장이 인파들로 북적북적해짐과 동시에 제 머릿속도 북적북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움직였던 나흘간의 기억이 이상하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모이면 축제마냥 즐거운 단원들

30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모이는 정기교육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축제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합니다. 함께 NGO에서 길을 찾는 청년들답게 공통점도 많고, 따라서 하고 싶은 말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행사 기획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정기교육 참석률이 가장 낮은 단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육 준비하신 재단 측과 팀원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의 순간

햇병아리도 6달이면 달이 된다지만 사실 실수는 여전히 잦습니다. 아직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면접 때부터 와우책문화예술센터를 희망했었습니다. 다른 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기회를 주고, 많이 번거로우셨을 텐데 하나하나 유쾌하고 세세하게 지도편달 해주신 와우책문화예술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경 대리 와우책문화예술센터

그대 덕분에 올 한해 큰 사업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맙고 또 고맙다. p.s 지금 모습도 충분히 매력있으니 셰이크는 적당히 먹어라 :P



사람이 가지는 힘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만든다

정원경



면접을 보기 위해 아산나눔재단에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여름 해가 뜨거웠고 언덕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기에 우울한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6개월 뒤의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교육시간에 단원들의 자기소개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영리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신념이 뚜렷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조차 없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 의지와 신념은 이들과 약하지 않을까, 결국 나는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인턴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단원들에게 저는 늘 칭얼거림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는 늘 다른 단원들의 업무량과 성실함, 의지에 대한 놀라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똑똑하고 의자

가 강해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부족한 저의 실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관 분들은 격려해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작은 행동과 말에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배워나갈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이 닦쳐도 늘 비전을 잃지 않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늘 밤낮없이 단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아산나눔재단의 직원분들 없이는 절대 이 과정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출 기



한을 넘기고, 우는소리를 하며 직원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눈 마주치실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첫 지원서에서부터 마지막 수기까지 지켜봐 주셨기에 저의 미약한 성장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뿌듯함으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많은 명사들로부터 훌륭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늘 옆에서 함께 해 주신 기관 분들, 아산나눔재단의 직원분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입니다. 착하지도, 잘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착하다', '잘한다' 칭찬을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간 이분들의 격려가 저를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의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단원들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울타리 밖으로 흩어져 훗날 비영리 분야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곳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종화 팀장 푸른나무청예단

원경쌤, 지난 5개월간 청예단 나눔사업팀에서 있는 동안 직장생활에 대해 최대한 많이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인턴이 아닌 일반 신입직원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업무도 사업의 큰 부분을 맡기고 기대하는 것이 크다보니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잘 헤쳐나가고, 업무도 잘 해주어서 고마워요.
좋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 모두 큰 경험으로 여기고 앞으로 더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 12월로 인턴기간이 끝나 너무 아쉽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푸른나무 청예단 신입직원으로, 청소년 위한 원경쌤의 역량 잘 펼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

나이
26

장래희망
문제의식 있는 디자이너

좌우명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다

인턴십 수행기관
푸른나무청예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행운이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속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차현지

사범대학에 다닌다고 하면 흔히들 임용 시험을 준비 하느냐고 묻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왜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조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졸업을 1년 앞두고 휴학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했던 1학기 때와는 달리 2학기에는 저를 좀 더 열심히 살게 하고자 마음먹었는데,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공고였습니다. 비영리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인턴십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저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프로그램으로 22살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합격 후에 진행되었던 2주간의 교육에서는 비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멋지고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던 비영리는 단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곳으로 월드비전, 유니세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나중에 저분들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강연에서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NGO가 무엇인지 예서부터 비영리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만나 곁손을 하게 된 이야기까지 매시간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와 팀 프로젝트는 매번 과제로 생각되던 대학교의 팀과는 달리 새로운 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과정들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별생각 없이 살아온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해볼 기회를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었던 2주가 지나고 팀장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슈퍼 인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인턴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출근을 4일 앞두고 알게 된 저의 실습 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었습니다. 이름도, 위치도, 하는 일도 생소했지만 '어린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관심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곳 일거라 생각했습니다. 서툴렀던 첫 사업 계획서, 첫 인터뷰 기사 작성, 첫

행사 동영상 제작, 첫 레크리에이션 진행. 5개월이 온통 처음인 것들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해본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항상 밝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8개 인턴 기관을 통틀어 좋은 사람들과 분위기만큼은 우리 기관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답니다. 또 재단에서 일하면서 어떤 업무를 크게 배웠던 것보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았고 비영리 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부딪히며 알게 되어 저의 미래를 조금 넓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과정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비영리라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몰랐을 것들을 만났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아영 과정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루피, 우리의 현직. 낮은 사람에서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도담도담' '자문위원 릴레이 인터뷰' '안전퀴즈왕' '재난안전놀이체험장' 등.. 재단에서의 프로그램들 있었고, 현직와 함께했기에 우리들 모두가 즐거웠어. 앞으로 어디서든지 대형사고없이 우리, 멋지게 아는사람으로 지내자.



학교
한양대학교
수학교육학

나이
22

장래희망
교육관련 전문가

좌우명
재미있게 살자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따뜻하고 배울 점 많은 단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좋은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꿈에서
오랫동안 깨어나고 싶지 않다!



사람이라는 소중한 자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현단비



학교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

나이
24

장래희망
사회적책임의식을 가진 리더

좌우명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YWCA연합회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불금(불타는금요일)이다.
정기교육 날짜인 금요일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항상
기다렸던 저의 모습! 그래서
유스는 나에게 불금이다.



‘단비 님이 인턴활동을 하게 될 기관은 한국YWCA연합회입니다.’

두근거리는 합격소식을 받고 한국YWCA연합회 건물에 있는 명동으로 처음 출근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향하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그곳에서 처음 뵈게 된 분이 지금까지 일을 함께하게 된 우리 부서 부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부장님과 재미있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연합회와 협력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한국YWCA연합회에서 일하게 됐다고 얘기하니 ‘연합회에 나랑 같이 협력 사업했던 배정미 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라며 부장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배정미 부장님의 부장이 바로 그 부장님이셨습니다! 첫날 부서 회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부서의 선생님들이 모두 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 언니가 저희 부장님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더라면(?) 매일 집에서 보는 언니랑 협력사업 파트너 관계가 될 뻔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한국YWCA연합회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로 맡게 된 업무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설치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라는 보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주간·월간 보고서를 취합하거나 센터의 지원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가 사무실에서 문서로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바로 ‘산골마을 달빛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돌봄센터가 설치된 곳 중 한 곳인 체천 덕산에서 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해 열린 콘서트인데 기존 사업 계획에 없던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악회의 타이틀인 ‘산골마을 달빛음악회’라는 이름도 제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고 책임감도 느꼈었습니다. 10월 중순 찬바람이 부는 덕산 초·중학교에서 열렸던 음악회를 위해 현수막, 리플렛 제작부터 당일 업무 협력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준비했던 1달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돌봄센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너무나 맑은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이 일을 하는 보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인턴생활을 하면서 조금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건 바로 우리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로를 응원하며 지각의 위기를 함께했던 우리 유스 단원들. 2주에 한 번씩 아산나눔재단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정말 즐겁게 유스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스는 일반적인 인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매달 2번

씩 모두 모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저에게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하나의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오후에는 여러 특강을 들으면서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5개월이 지난 지금 저 자신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내 삶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며 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 그리고, 한국YWCA연합회 식구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의 모든 분들! 이 소중한 인연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구정혜 국장 한국YWCA연합회

현단비 선생님. 5개월 동안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한 사람의 활동가 뒤편 담당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이 시간들이 선생님이 앞날을 설계하는 데,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처럼 성실하고 밝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도전한다면 꼭 원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졸업을 미리 축하해요. 또 만나요. 파이팅!!

아산나눔재단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건강한 젊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Youth, with their unlimited potential and dreams, are the future of our society.

We at the Asan Nanum Foundation believe youthful passion and energy move society forward.

Asan once said that “those who believe that anything is possible will be able to achieve everything.”

We believe Asan’s guiding principle is also applicable to today’s youth.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share Asan’s spirit with the young adults today: the passion to dream, the challenge to create, and the responsibility to share.

비전_vision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aims for an open society that allows all its member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미션_mission

아산나눔재단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열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give young adults and those in need the skills and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dreams and become successful citizens.

핵심가치 CORE VALUES

꿈과 열정_Dreams and Passion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정

Identifying one’s dreams and passionately working towards a better future

도전과 창조_Challenge and Creation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

Fostering the spirit that creates change

나눔과 책임_Responsibility and Sharing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Living as responsible citizens by sharing and being compassionate

사업 선택 원칙 PROGRAM DEVELOPMENT

역량개발 일회성_Capacity Building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Promote sustainable capacity development

사회적 파급효과_Social Impact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Focus on initiatives that effect broad social change

자생력 복원_Self-Reliance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Empower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 become independent

사업 진행 방식 PROGRAM IMPLEMENTATION

책임성_Responsibility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Making bold ye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in innovative ideas

질적 성과_Performance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Emphasizing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of programs

투명성_Transparency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Open and accountable management of programs and activities

가장 참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된다.

그 참된 식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직접
겪어보고 가장 힘든 일도 직접 해보고, 가장 고생스러운
현장에도 나가서 경험해보고 해야만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한자리에 편안히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폭 넓은 식견을
구비해야 한다.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아산(峨山) 정주영

발행일 2016년 1월 16일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진행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1층
전화 02-741-8220
팩스 02-741-8230
E-mail youth@asan-nanum.org

디자인 1-1 컴퍼니